



- 사순 제3주일 - 2019년 3월 24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791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jb.ucatholic.or.kr

5지구 - 행주 성당



설립 1909년 5월 26일

전화 사무실 031-974-1728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94번지

제1독서 탈출 3,1-8ㄷ.13-15

화답송 시편 103(102),1-2,3-4,6-7,8과 11(㉠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2독서 1코린 10,1-6.10-12

복음 환호송 마태 4,17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복음 루카 13,1-9 또는 탈출 17,3-7

영성체송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참 자유인’으로 살기 위한 회개의 삶



김청렴 도미니코 신부
국내수학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그토록 어려웠던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을까요? 해마다 찾아오는 이 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수난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회심(回心, conversio)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이번 사순시기를 맞이하면서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느님 나라가 정말로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바쳤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작년 9월부터 저는 대학원에서 청소년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강했던 한 강의에서 학생들과 공유했던 인권 관련 추천도서 중의 하나인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교수님의 ‘자기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힘’이라는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에서 ‘자유(自由)’의 의미에 대해서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내셨던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자유(自由)를 풀어쓰면 ‘자기(自己) 이유(理由)’를 가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자기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자유인(自由人)’이라는 말인데, ‘한 번뿐인 삶’을 걸고 실현하고 싶은 ‘꿈’과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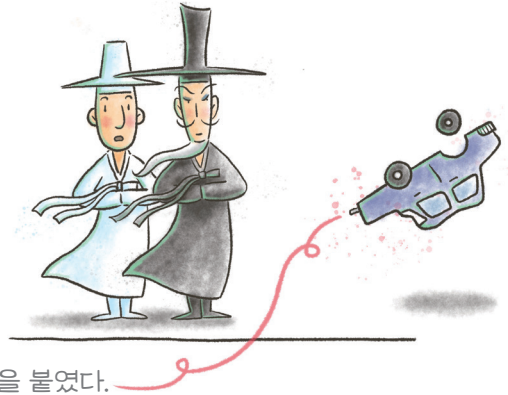
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셨고, 시대를 초월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서거일(4월 4일)이 곧 다가옵니다. 한 명의 흑인 인권운동 목사의 비폭력주의 평화운동에 두려움을 느낀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은 그를 암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인 것은 킹 목사였지만, 그의 ‘꿈’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빌 몰딘이라는 만화가가 간디와 킹 목사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암살자들의 희한한 점은 말ियो, 킹 목사, 그들이 당신을 죽였다고 생각한다는 점ियो.”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당신 스스로 찾으신 ‘자기 이유’는 결국 사람들의 ‘회개’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지니셨던 ‘꿈과 이상’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자유’라고 생각했던 생활에서 돌아서서, 모두가 자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기 이유’를 발견하는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



구사일생



고속도로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죽음을 보고 구사일생이 말을 붙였다.

“형님은 마을로 가시지 왜 이런데 계십니까?”

죽음이 대답했다.

“마을에서는 힘들게 추수를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이삭만 주워도 되니까 그러네.”

이때 과연 ‘깡’ 소리가 났다.

차를 타고 휘파람을 불며 1분 먼저 가려던 세 사람의 목숨이 이삭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죽음이 유유히 일어나서 세 사람을 맞이하러 갔다.

구사일생이 죽음의 뒤를 따르며 종얼거렸다.

“내 차지가 하나라도 있어야 할 텐데.”

죽음이 두 팔을 벌리고서 말했다.

“어서 오시오. 나의 이삭들이여.”

그러자 한 사람이 몸부림을 치며 통사정을 했다.

“난 이대로 가선 안 됩니다.

그동안에 그 아까운 것을 쌓아 놓기만 했지 쓸 줄을 몰랐습니다.

쓰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죽음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한두 번 속아본 말이 아니오. 풀어 놓고 오라면 다시 또 쌓기만 하던걸요, 뭐.”

다른 한 사람은 반항을 했다.

“내가 왜 벌써 가야 합니까?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이란 말예요.”

죽음이 그의 등을 두들기면서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평소에 주어진 시간조차도 허비한 사람이오. 이젠 때가 늦었어요.”

침묵하고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을 향해 죽음이 물었다.

“당신은 할 말이 없소?”

비로소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어 슬퍼할 친구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이 내 친구들을 좀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음이 눈을 지그시 감고서 말했다.

“그것은 당신이 직접 하는 게 낫겠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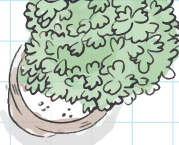
죽음이 구사일생을 불러 말했다.

“자네가 데려갈 사람이 하나 있네, 그러.”



그림 _ 구민정 엘리사벳





침묵

엔도 슈사쿠 지음, 김윤성 옮김 | 바오로딸 | 면수: 332면 | 9,000원



16세기 중엽, 예수회 선교사를 통해 일본은 그리스도교를 처음 접합니다. 일본 영주들은 서구 열강과 총포 기술을 손에 넣으려고 선교를 묵인합니다. 17세기 초까지 신자수가 무려 약 50만 명으로 불어나지만, 너무 커버린 교세에 놀라 그리스도교를 탄압합니다.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때 금교령이 해제될 때까지, 무려 300년 가까이 박해와 순교가 이어집니다.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은 17세기 일본 나가사키가 배경입니다. 이국땅 일본에서 33년 세월을 선교에 투신한 페레이라 신부가 결국 붙잡혀 배교했다는 소식이 본국 포르투갈에 전해집니다. 로드리고 신부 일행은 스승의 배교 소식에 놀라 일본행을 결심합니다. 소설은 박해의 참혹한 현장과 두 신부의 깊은 고뇌를 밀도 높게 그려냅니다.

‘거기서는 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고 굶주림도 병도 없고, 노역도 없다는데요. 지금 우리는 진저리나게 일만 해 왔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 세상은 고생뿐이에요. 천당에 가면 그런 고생은 없다지 않아요, 신부님?’ (146쪽)

‘페레이라의 목소리, 신자들의 신음소리는 그의 귀에 사정없이 들려왔다. 그만 해주세요. 그만 해주세요. 주님, 당신은 이제야말로 침묵을 깨셔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잠자코 계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엄연히 있다는 것을 이 지상과 인간들에게 명시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말씀이든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290쪽)

예수상이 새겨진 동판을 밟는 행위로 배교를 판단하는 자리, 밟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고문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는지요? 작가는 소설만이 가진 진정성의 힘을 빌려 ‘침묵하는 하느님’을 표현합니다. 인간이 제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하느님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강한 의지의 인간들이 보여주는 하느님뿐만 아니라, 약하고 여린 이들을 말없이 끌어안고 울음을 삼키는 하느님을 보여줍니다. 나가사키에 있는 엔도 슈사쿠 작가의 묘비명을 옮겨봅니다.

‘주여,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바다는 너무도 푸릅니다.’ ☹️

글쓴이 _ 유형선 아오스당

소개 : 유형선 아오스당은 파주 야당맑은연못성당 신자입니다. 아내와 공저로 <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을 썼고 ‘가톨릭일꾼’과 파주지역신문 ‘파주에서’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3월 1일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며 한반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들고일어난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3·1 독립운동으로 상징되는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한반도 국민들의 피나는 투쟁과 저항 정신은 끊임없이 계승되어, 최근의 촛불 혁명이나 남북 평화를 위한 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담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2월 20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 운동 정신의 완성은 참평화”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 김희중 대주교는 “백 년 전에 많은 종교인이 독립운동에 나선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천주교회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 한국 천주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저버린 잘못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찰하며 반성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독립 선언서 작성에는 천도교(15명), 개신교(16명), 불교(2명)가 참여했지만, 천주교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 한 세기에 걸친 혹독한 박해를 겪고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한국 천주교회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까닭에 외국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한국 천주교 지도부는 일제의 강제 병합에 따른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도, 교회를 보존하고 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교분리 정책을 내세워 해방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외면한 채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했으며”, 또한 “나중에는 신자들에게 일제의 침략 전쟁에 참여할 것과 신사 참배를 권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희중 대주교는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로의 다름이 차별과 배척이 아닌 대화의 출발점이 되는 세상, 전쟁의 부채를 넘어 진정한 참회와 용서로써 화해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과거를 반성하고 신앙의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어, 한반도에 참평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책임

한편, 올해 3월 1일은 우리 일본 천주교회에도 역사를 직시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인들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다시 물어야 하는 날입니다. 일본 천주교회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국 천주교회에 크게 관여했었고, 신자들이 일본의 침략 전쟁에 협력하도록 촉구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게다가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전

쟁과 남북 분단의 근원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침략 정책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 한일 정부는 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일 천주교인들은 같은 평화의 복음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형제자매로서 과거 일본의 가해 역사를 직시하며, 문화, 종교 등 시민에 의한 다양한 교류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100년 전 조선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응답입니다.

보편적 호소인 3·1 독립 선언서

3·1 독립 선언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병자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무도함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 일본 제국주의 통치배들의 부귀공명의 희생이 되어 압제와 수탈에 빠진 이 비참한 상태를 바르게 고쳐서 억압과 착취가 없는 공정하고 인간다운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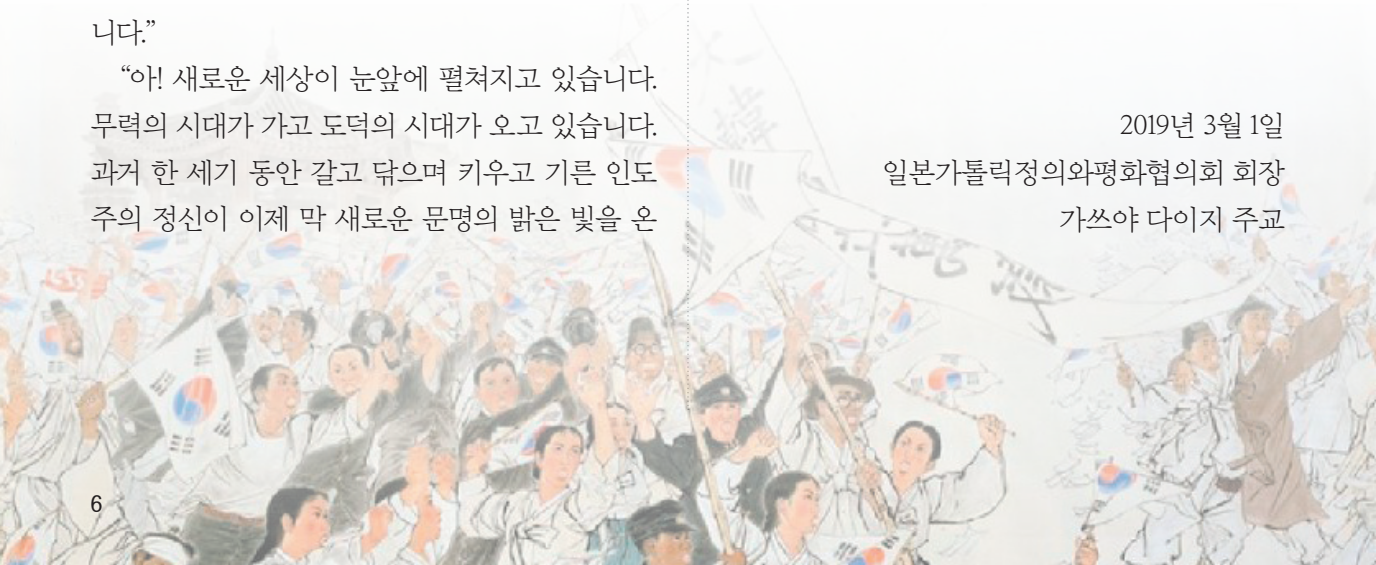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력의 시대가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 한 세기 동안 갈고 닦으며 키우고 기른 인도주의 정신이 이제 막 새로운 문명의 밝은 빛을 온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통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형세라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펼쳐 펴는 것은 이때의 형세이니, 천지의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지녀 온 권리를 지키고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맘껏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문화를 찬란히 꽃피우게 할 것입니다.”

곧, 이 독립 선언서는 일본에 대한 비난과 단죄가 아니라, 차별하고 민족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은 식민지주의의 극복이라는 더욱 숭고한 인류 보편적인 이상 실현의 호소이며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100년 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상기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본의 천주교 신자들도 한국 천주교회와 함께 이 ‘선언서’가 지향하는 지평을 바라보며, 국가보다도 인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1일
일본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회장
가쓰야 다이지 주교



침묵이 말해주는 것은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 대학교

“모름지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 한 명인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1889-1951)의 명저<논리 철학 논고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오해를 남긴 구절이기도 합니다. 논리실증주의자, 과학주의자, 자연주의적 환원주의자, 세속주의들은 비트겐슈타인의 ‘결론’ 이야말로 철학이 인간의 초월적 영혼과 삶의 의미, 신에 대해 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헛되며 공허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비록 불가지론적인 세계관을 가졌지만, 자신의 철학이 학문적 지식의 추구가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 탐구하는 절실한 수행이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년에 그의 제자 모리스 오크너 드 루어리와 나는 귀중한 <대담>을 읽어 보면 그의 종교성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를 실감합니다(러시 리스 엮음, <비트겐슈타인의 회상록>, 이윤/서민아 옮김, 필로소픽, 2017).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침묵’해야 한다고 한 것은, 과학적 지식과 일상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다가 아니며, 오히려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침묵해야 하는 그곳에 존재하고 생겨난다는 의미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인간이 침묵하는 것은 초월에 대한 경외심과 갈망의 표현이어야지,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으며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오만함이거나, 허무와 절망에 대한 최종적인 굴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침묵은 어떠한 경우든 ‘절대 고독’이거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침묵 중에도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소리에 더욱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침묵은 오히려 이전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했던 ‘목소리’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순시기는 침묵

이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성무일도>의 아침 기도를 시작하는 ‘초대송’ 첫 구절은 그 침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주님의 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침묵이 말해주는 것을 전해주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침묵이 차가운 무의 심연이 아니며 사랑을 향한 침잠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위대한 음악들을 통해 실감합니다. 우리 시대에 침묵과 종교적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감동적이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걸작들을 내놓은 음악가 중 손꼽히는 사람이 에스토니아 출신의 아르보 페르트(Arvo Pärt, 1935-)입니다. 그의 음악에 대해 신학자 헬무트 호핑은 다음과 같이 평하기도 하지요. “그의 성스러운 음악은 음악 시학의 모습을 한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청자를 ‘침묵의 고요’로 이끕니다. 그 안에서 듣는 이는 인간이 내는 소리가 아닌 또 다른 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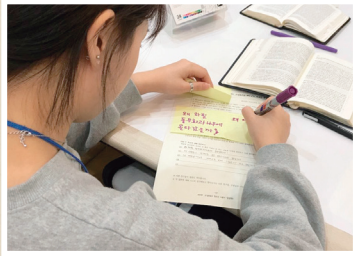
페르트의 초기걸작 중 유명한 것이 <타볼라 라사(빈서판, 1977)>입니다. 자신을 빈터로 만들고 초월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절대자를 초대하려는 경건한 정신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 절정이라 할 2부의 소재 목이 다른 아닌 ‘침묵(Silentium)’입니다. 명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가 참여한 1984년의 기념비적 실황 녹음 이래 이 곡은 수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고 페르트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사순시기에 이 곡을 들으며, 영적인 모험이자, 사랑의 인식이 자라나는 자리인 침묵의 시간을 갈망합니다. 🎻



아르보 페르트(Arvo Pärt)
'침묵 (Silentium)'

밀알들의 봄맞이 하나 ♥

2/23~24, 본당을 대표하는 84명의 청소년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우정>이라는 주제로
 한자리에 모여 함께 나누고 배우고 기도했습니다.
 서로에게 다가가며 우정을 맺은 친구들의 모습,
 사진 속에서 느껴보실래요?



뽀뽀쌤의  중고만화 김준희

다시

새학기엔
좀 어때?

다시
시작이죠 뭐~

그래도
다시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엔
아직
수 많은 다시가
남아있잖아요.

다시는 희망!

다시
시작해요!





3월 24(주일) 10:30 사목회장, 평단협 연수 - 한마음수련원 피정동
25(월)-29(금) 주교회의 2019년 춘계 정기총회 - CBCK

교구 소식

교구청 혼인교리

일시: 4/11(목) 19:30~22:30
장소: 교구청 지하 대회의실 /회비: 2만 원
문의: 가정사목부 031-850-1448

성소후원회 미사

5,6지구 일시: 3/28(목) 10시 장소: 마두동 성당
7,8지구 일시: 3/28(목) 10시 장소: 금촌2동 성당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4/1 (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경환 프란치스코 /문의: 031-850-1507(주말, 공휴일 휴무)

행주 성당 미사(전대사) 문의: 031-974-1728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일시: 3/25(월) 11시 / 고백성사: 10시



2월 행복충전소 모금액
4,662,100원

모금액누계 총 768,060,602원

'100원의 행복충전소'는 저소득 아동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저금통 후원 문의 : 031-850-1483

미사 · 피정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 월례미사 안내

일정: 3/27(수), 14시
장소: 교구청 5층 경당
대상: 교정사목을 후원하시는 모든 신자
문의: 031-856-0213~5 (전화, 문자 모두 가능)

최봉도신부 희망기도(내적치유)피정 2박3일

희망기도 마음이 가벼워지는방법
일시: 4/5~4/7, 5/3~5/5 (금,토,일)
장소: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교육관리자호텔 2.6호선 7번출구 도보10분 /문의: 010-6254-0057

살레시오수녀회 교리교사 하루피정

주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날짜: 4/7, 5/11, 5/26, 6/15, 6/16
장소: 서울 신길동 살레시오수녀회 교육영성센터
참가비: 1만 5천 원
문의: 010-9749-8127

야곱 전국 성지순례 /전화: 02-755-3009

마산교구: 4/26~4/27, 대구교구:5/30~5/31
대전교구: 6/13~6/15, 원주춘천:6/28~6/29
홍성남 신부님과 홍콩 마카오: 6/24~6/24

교리교사 하루 피정

일시: 4/7, 5/11, 5/26, 6/15, 7/16 중 선택
장소: 살레시오수녀회 서울영성사목센터
문의: 010-9749-8127 /참가비 1만5천 원

예수회 젊은이피정

주제: 그대 앞에 봄이 있다
내용: 침묵안에 개인기도, 고해 및 면담
날짜: 4/5(금)~7(일) 2박3일
장소: 예수회센터
대상: 39세 이하 청년 /선착순 17명
참가비: 6만 원 /학생 5만 원
문의: 예수회청년센터 02-3276-7706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아래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예약가능)
일시: 4/1~3, 4/6~9(추차도), 4/12~14, 4/28~30, 5/4~7(추차도),5/10~12
접수: 02)773-1463, 064)756-6009

상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교구 철야기도회

일시: 매주(금) 21:30~02시 마두동 성당(3/29)
주제: 제 6주 기억과 무의식의 치유
강사: 장혜승 마리아(전국협의회 번역실장)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총무부 010-8729-0025

청년 파스카 성삼일 전례 피정

일시: 4/19(금)~21(일) 2박3일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경북 왜관)
대상: 고1~40세 이하 미혼 남녀
피정비: 학생 4만 원, 성인 5만 원
마감: 4/5(금) /신청: 010-8353-2323

4차 순교자 학교 (주제 : 박해시대의 평신도)

일정: 4/27(토)~28(주일) 시작14시. 마침16시
장소: 정하상교육회관 /044-863-5690~2
010-8848-5690 /8만 원

무료 성경 통독 피정

매월 마지막(화) 3/26, 11시~16시
장소: 마리아니스트센터(고양시 토당동 호수로76-17)
문의: 031-926-3090, 010-5267-1380

마리아니스트 센터 미사안내

성모신심 미사: 매월 첫(토) 11시(4/6)
후원회미사: 매월 4째주(월) 11시(3/25)
위령미사: 매월 마지막(금) 15시(3/29)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76-17, 031-926-3090

예수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하느님, 살아계신 분 /석요섭 신부
일시/장소: 3/29(금) 10시~15:10 /예수회센터
문의: 02-3276-7777(예수회 후원회) /무료, 미사봉헌

가정선교회 <성가정 영성 일 대피정>

일시: 4/3 첫(수) 9:30~16:30
장소: 서울 명동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사: 윤민재 신부, 이현주 회장
접수없음, 회비없음, 김밥 판매(2천 원), 미사 준비, 개인컵준비(현장판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문의: 010-2367-2297, 010-5674-8511
대표전화 02-777-1773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모집

분야: 청소년활동지도자
 우대: 교리교사 경력 등 /기간: 4/7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만 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우:04535
 전화: 02-2274-1843,4 /홈페이지: cdcc.co.kr

의정부 가톨릭 경제인회 회원모집

가톨릭 신앙 안에서 경제인 상호간 정보 교류와
 노블레스 오블리즈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
 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 하는데 함께하실 교
 우 분 들을 초대 합니다
 문의 : 사무총장 나경표 마르코 010-5289-3107

2019 후기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과정: 석사과정(5학기)
 모집전공: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전공(CCM 작
 곡전공포함) /학위 및 자격증수여: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4/15(월)~4/26(금) 09시~17시
 전형일 및 장소: 5/17(금)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
 대학원(충정로역,서울역 하차)
 문의: 02-393-2213~5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사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사회복지법인 바다의 별)
 문의: 033-458-9422(문피노인요양원)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활동 참가 가족/단체 모집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운영기시 6~7월)
 한마음가족캠핑가(1박2일), 한마음오리엔티어
 링 교실(1일), 주말학교 야외체험 활동(운영기
 시 3~11월), 캠핑야영, 오리엔티어링(보물찾기),
 체린지코스/집라인 체험
 문의: 031-840-0742(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가톨릭경영자과정 제22기

새롭게 개편된 가톨릭신자를 위한 최고의 경영
 학·영성 교육과정
 대상: 기업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국공립기관 임직원, 자영업, 성직자·수도자, 경
 영학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 누구나
 과정의 기간: 4월 초 개강, 봄 학기 과정, 매주
 오후 수업 /등록금: 400만 원
 교과과정 소개 홈페이지(<http://www.sbs.ac.kr>) 내 비학위과정)S-CAMP참조
 문의: 02-705-8030 / sgscamp@sogang.ac.kr
 주임교수 문의: 010-7209-3421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봉사자
 장소: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문의: 031-820-7003

가톨릭평신도영성연구소 연구원양성과정 모집

모집일시: 3/24~4/7
 모집대상: 4년제 대졸 이상인 40~50대
 문의: 박문수 소장 010-3822-0906

농장관리인(8천원) 부부모집

서류접수: 4/14까지 사무실 접수
 면접: 서류심사후 추후 개별공지
 기타: 숙소제공, 전기기출자 우대
 문의: 송추성당 031-855-1225

카리타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99년에 창단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합창단 /모집: 전체파트 00명 (55세미만)
 연습: 매주(월) 19:30, 유락사회복지관(신당동)
 9층강당 /문의: 010-3266-6645 총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여행

내용: 나의 리듬과 방식에 적합한 스트레스 해
 소법을 찾아 몸과 마음을 균형있게 관리함.
 일시: 4/6~7(1박2일)
 문의: 02-775-4831(평화심리상담소)

청년성서모임 센터그룹공부 그룹원/봉사자 모집

대상: 만20세 이상 청년 신자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장소: 화정동성당 말씀의방 /신청방법: club.
 cyworld.com/godloveujb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ujbible@gmail.com으로 이메일 접수
 문의사항: 말씀의방 031-979-7065

은평성모병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령: 20~65세 이하로써 심신이 건강한 남, 녀
 봉사주기: 주1회 이상(봉사요일 선택가능 :월~금)
 봉사시간: 안내봉사 - 3시간(오전·오후 선택 가능)
 문의: 02-2030-3456(서경임수녀/ 안내봉사자)
 02-2030-4296(호스피스 센터)

부천성모병원 알코올의존치료센터

생명신비의상 수상기관
 술로고통받는이들 위한 8주 재활프로그램
 단주친목자조모임(AA,AI-anon)
 최고의 전문성과 높은 회복률
 수시상담가능 032)340-7215/6

태우영성심리상담소(문의:010-3419-5604)

개인심리상담(불안,우울, 분노, 스트레스,관계&성격)
 부부및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신앙및영성상담
 수도자심리상담전문가, 상담심리박사 직접상담
 장소: 일산 탄현역 5분거리

안내 · 기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진료개시(4월 1일)

"오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좋은 병원을 만납니다."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3번 출구
 진료예약: 02-1811-7755 www.cmcep.or.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

예수회 랑데부연수

주제: 대인관계(만남과소통)
 일정: 3/30(토)~31(일)
 대상: 청년누구나(선착순30명)
 장소: 예수회센터
 참가비: 8만 원(대학생6만 원)
 문의: 예수회 청년센터(02-3276-7706)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4/16 이스라엘 일주 9일 360만 원
 5/6 멕시코, 쿠바, 페루 12일 590만 원
 5/13 동부유럽 12일 379만 원
 6/2 터키 그리스 13일 395만 원
 문의 : 02-2281-9070/www.cttour.org

가톨릭여행사 02-319-2533

4/22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5/13 러시아 발트3개국 10일 395만 원
 5/14 독일 동유럽 4개국 12일 365만 원
 5/27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5/1 6/4 이스라엘,요르단10일 289만 원
 4/22 5/24 성모님발현 13일 389만 원
 5/12 나가사키 949원 4/7 다낭 129만 원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4/22 이태리 일주 12일 370만 원
 5/14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14일 390만 원
 6/3 발칸반도 및 메주고리에 11일 370만 원
 7/1 아일랜드, 스코트랜드, 영국 12일 48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성 소 모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시(개인 성소식별 동반)	길음동 본원	010-9900-5811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010-8715-2846
살레시오회	3/30(토)~31(일)	서울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신길동)	010-5159-3949



성체성사(3) : “내가 생명의 빵이다.”(요한 6, 35)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지난 해 여름, 한국천주교회는 “성체 훼손 사건”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톨릭교회의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빵 조각”에 낙서하고 불태운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이나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無知)나 신앙심과는 관계없이 믿는 이에게도 믿지 않는 이에게도 성체는 분명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는 믿는 이들에게는 지극한 공경의 대상으로서 주어져야 하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아니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공할 수 있겠으나, 그 자체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하는 “성변화(聖變化)”의 원리를 인간에게서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찬례가 지니는 ‘거룩한 희생제사’라는 의미를 간과한 채, 인간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희생을 ‘요청’하는 일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인간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신 것은 결코 인간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자유로운 ‘자기희생’ 혹은 ‘자기 비움’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가운데 “현존(現存)”하시고 함께 머무르십니다. 성체성사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언젠가 만나게 될 예수님께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분이므로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심으로 써 우리 가운데 계속 신비롭게 머물러 계시며,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전해 주는 표징 안에 계십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80항) ☪